樞密公派祖·忠憲公 歲享 奉行

지난 10월 18일(일) 오전 10시 30분 경 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 177 추밀 공 (諱:水平.10世),충헌공 (諱:題.11世) 단 소에서 파친 25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세

향(歲享)을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참제를 위해 전국의 후손들은 서 울에서 관광버스 2대, 강릉 1대, 대전 1대, 음성 1대와 문중별로 멀리 부산, 경주, 구 미, 대구, 원주, 청주, 음성, 양주, 인천 등 에서 삼삼오오 승용차로 편승해서 전진 교에 도착하여 통과절차를 마치고 단소 에 도착하여 세향을 봉행하였다.

세향에 앞서 권경석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아침부터 안개가 많이 끼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근 각지에서 참제를 위해 오 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회장 을 맡으면서 해야 할 일을 숭조 제일로 파 조 세향과 단소 관리에 힘쓰며, 각파 실태 를 확인한바 일부가 종회빌딩을 소유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추밀공파는 종원 수로 보면 안동 권씨의 35%이상이 되는 가 장 큰 종파이지만 회관이 없어 숙원시업으 로 회관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여러 문중과 파친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또 "우리 파친들은 숭조 애족의 마음으 로 세향에 참석하고 있는데 자손들을 대 동하고 참제하면 백문(百聞)이 불여일견 (不如一見)이라고 숭조의 마음은 영원히



△추밀공추향제에 권혁봉초헌관 헌작하고 있다.

지속될 것"이라고 하였다.

△추밀공 경석회장의 인사

이날 세향의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 추밀공 : △ 초헌관 : 權赫鳳 △ 아헌 관:權光淳 △ 종헌관:權 奇俊 △ 집례:

權榮俊 △ 奇관: 權炳善

■ 충헌공: △ 초헌관: 權炳文 △ 아헌 관:權泰春 △ 종헌관:權五鉉

〈권경일기자〉



△충헌공 추향제에서 독축을 하고있다.

花山府院君 秋享祭 및 定期總會

화산부원군 추향제 및 정기총회

화상부원군종회(회장 권정택)는 지난10 월11일 오후1시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선 영의 17세 화산부원군 휘 복 묘소에서 모 든 참제원이 참석한 가운데 을미년 추향 을 봉행하였다. 이어서 정기총회를 하려 고 하였으나 우천으로 정기총회 자료를 간행물로 대신하기로 결정하여 간단하게 음복과 다과를 하여 모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유인물에는 감사보고 결산보고 예산편성안 임원명부 화산부원군 도지내 역 종중정관 종중토지매도건 등이다.

헌관분정은 화산부원군 초헌관 권태균 아헌관 권성옥 종헌관 권효택

좌랑공 초헌관 권용식 아헌관 권희범 종헌관 권인택

이보다 앞서 오전 9시에 19세 부정공



욱자 묘소에 가서 종손인 경택씨의 헌작 으로 제향을 올리고 10:30 정헌공 묘소에 합류하여 정헌공 밀직공 추향제에 참제 하였다. 〈화산부원군 종회〉

정조공파 대구파친회 보학강좌

정조공파대구파친회(會長權寧日)는 지 난 10월10일 오후5시 시내 백림식당에서 보학강좌를 개최하였다.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에 대한 망배, 상읍례에 이어 영일(寧日)파 친회장의 숭조정신 앙양과 파친회의 화 목도모와 후진장학과 의례예절 실천에 대하여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강의에서 는 자랑스러운 안동권씨의 연원(淵源)과 정조공파 원류(源流)라는 주제로 사성유 래(賜姓由來), 권문의 시시(四始), 능동묘 역(陵洞墓域), 춘추향제(春,秋享祭), 능동 재사(陵洞齋舍) 등과 정조공파의 연원과 강의를 하였다.

(編輯 權寧日) 라는 제목의 책자를 특별 히 제작하여 교재로 참석자 전원에게 배 포 하였다. 강의가 끝나고 참석자 39명은 식사를 하며 저마다 그간 못 다한 정담들 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총무 권혁상〉

석주공종회 운암서원 추향제 봉행

지난 10월 8일 11시에 광주시 북구 화암 동에 소재한 유암서원(雲巖書院)에서 해 광 송제민 (海狂 宋齋民)선생과 석주 권 필(石洲 權韓)선생, 화암 송타 (花蓭 宋 柁)선생의 추향제가 안동권씨 추밀공파 석주공후손과 홍주 송씨 후손 그리고 광 주시 유림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 숙히 봉행되었다.

광 송제민 선생과 석주 권필선생과 화암 송타선생 3위의 유덕을 숭모하기 위하여 호남의 사림 300여명의 발의로 창건되었 으며 운암서원은 본손회장 송영수선생과 운암서원 오인균원장의 정성스런 관리로 잘 보존되고 있다.

석주 권필 (石洲 權韓)선생은 추밀공파 22세로 예조참의(禮事參議)를 지낸 습제



써 선조2년(서기 1509년)에 태어났다. 공 은 예조판서 이정구의 추천으로 동몽교

파명(派名)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으로

행사에 앞서 安東權氏正朝公派 源流



관(童蒙敎官)에 제수되었으나, 곧 그만두

부호장공파종회 파조 추향제 봉행



△원내는 권인호 초헌관

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회장. 권오정)는 파조(派祖)의 두 번째 추향제 (秋享祭)가 10월 10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참제원(參祭 員)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 행(奉行)하였다.

이날 분정(分定)은 초헌관(初獻官) 권

아헌관(亞獻 官) 권희택(權 義宅), 종헌관 (終獻官) 권주 연(權宙衍), 축 (祝) 권오진(權 五璡), 집례(執 禮) 권오중(權 五重)이 각각 담당하였다.

권인호 도유 사(都有司)는 인사말에서 "연

휴에도 불구하고 종원(宗員)들이 파조님 추향제에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한 후 안동권씨 성(姓)을 하시한 내력, 삼태사와 병산대첩(甁山大 捷), 일원정(一源亭)에 관한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소상히 이야기하고 나서 "안동권 씨 가운데 부호장공파가 두 번째 집으로

주연 회장이 중책을 맡고 있어서 파(派) 의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700 여 년 만에 지난해 파조 고유제를 처음 봉행한 이후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추향 제에는 헌관들이 검정색 관복(冠服)으로 갈아입고 참제원과 함께 1시간 이상 추 향제를 봉행하는데 흐트러짐 없이 파조 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다하였다. 추향제 가 끝나자 권오정 피종회 회장은 오늘 접 수한 성금은 부호장공파 2개 문중(門中) 6개 계열(系列)과 종원 30여 명으로부터 약 400여만 원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곧 이어 헌관들은 일원정에서 음복례(飮福 禮)를 하고나서 제관들과 함께 일원정 앞 잔디밭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부녀회원 들이 만든 비빔밥으로 점섬식사를 하면 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 누다가 헤어졌다.

현재 대종원 권정달 총재, 안동종친회 권

한편 내년 파조 추향제의 도유사는 경 북 유도회(儒道會) 부회장인 권오진(權 五璡)씨를 선정하였다.

〈권영건 보도부장〉

정헌공(正獻公)추향제 봉행



△정헌공 추향제에서 권준식 초헌관이 헌작하고 있다.

정헌공 종회(회장 권준식)는 지난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장단 군 진동면 하포리 정헌공(휘 왕후)묘소에

고 강화도 오류천에서 제자들을 가르쳤

으며, 詩文으로 명성이 一世를 뒤덮고 그 의 절의(節義)는 뭇사람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선생은 두보(杜甫)를 조종(祖宗)

으로 당시(唐詩)에 능하였으며, 허균(許 筠)은 詩가 청묘(淸妙)하다 하였으며, 남

용익(南龍翼)은 익제 이제현 (益齊 李齊

賢)에 비견하였고, 자랑스런 고양인으로

선정되어 고양시 행주산성공원에 석주

해광 송제민 (海狂 宋齋民)선생은 명

종4년 담양 홍주 송씨 가문에서 출생하

여 천생의 효자로 불리웠고, 성리학에 심

취하고 토정 이지함 (土亭 李芝函)선생을

사사(事師)하였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파죽지세로 도성이 함락되고, 왕

이 의주로 파천하자 공은 김천일 의병대

장의 종사관이 되어 발산성 혈전에서 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큰 전과를 올

제례는 초헌관 임용순(任龍淳),아헌관

박기호(朴奇鎬) ,종헌관 김영풍(金泳豊),

집례 홍경석(洪京錫),대축 정성희(鄭性

喜),봉향 권오종(權五琮),알자 송태백(宋

泰白) 등이 엄숙하게 추향제를 봉행하였

〈권경일 기자〉

권필선생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서 추향제를 봉 행하였다.

이날 서울에 서는 혜화동로 터리에서 권영 록씨의 인솔로 오전 8시에 전 세버스를 이용 했으며 대전(1 대), 연천(1대), 인천, 파주, 용 인, 이천 등 전 국 각처에서 개

인 승용차 편으

로 300여 명의 후손이 참가한 가운데 정 헌공 외 9위분의 추향제를 봉헌하였다. 특히 이날 오후 비가 오는 관계로 좌윤공, 예참공, 주부공은 「헤미리촌마을회관」에 서 봉행했으며 제례봉행전에 권준식 회 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지면관 계로 4위분만 게재한다.)

■ 정헌공:△ 초헌관:權俊植 △ 아헌 관:權赫東 △ 종헌관:權寧在 △ 집례: 權錫九 △ 대奇: 權善漢

■ 밀직공: △ 초헌관: 權泰義 △ 아헌 관:權成達 △ 종헌관:權五尙 △ 집례: 權錫九 △ 대奇: 權五甲

■ 부윤공: △ 초헌관: 權鎬英 △ 아헌 관:權南玉 △ 종헌관:權鎬益 △ 집례: 權錫九 △ 대奇:權光淳

■ 좌윤공 : △ 초헌관 : 권윤근 △ 아헌 관 : 권영록 △ 종헌관 : 권일원 △ 집례 : 권석구 △ 대축 : 권둔원

〈글:권오복・사진:권경일 기자〉

소등재사관리위원회 창립총회

복야공파 판서공계로 호군(護軍)이고 증(贈) 이조판서(吏曹判書)인 휘(諱) 곤 (琨)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한 소등재사관 리위원회(所等齋舍管理委員會) 창립총회 를 지난 10월 5일 11시 안동시 태화동 소 재 복야공파종회관에서 후손 5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소등재사는 안동시 와룡면(臥龍面) 태 리(台里)의 소등촌(所等村)에 있으며, 중 요민속자료 제204호인 조선시대의 목조 와가이다. 1726년(영조 2)인 병오(丙午) 에 세우고 1727년인 정미(丁未)에 확장하 였으며, 2004년 8월에 중수(重修)하여 재 실(齋室)로 사용해오고 있다.

소등재사관리위원회는 후손들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재산과 문사일체를 합리적 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권계동(權啓東) 금년도 추 향 도유사가 회의를 진행하여 회칙을 통 과 시키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였다.

관리위원회 고문은 권종준, 권숙도, 권 태규, 권오수, 권계동, 권오전, 권주섭이 고, 위원장에 권창용(맛질), 부위원장은 권대인(신한), 권경섭(진작), 감사는 권혁



명(신한), 권오영(도촌), 별유사는 권대인 (신한), 권영무(진작)를 선출하였다. 운영 위원은 각 소문중별로 안배하여 권기진 (맛질), 권오영(도촌), 권영두(신한), 권 양호(닭실), 권오신(현공산), 권영옥(진 작), 권용성(금계), 권오주(보현), 권순주 (순흥), 권광훈(충북 보은)을 각각 선임 하였다.

임원과 위원 모두는 성심(聖心)을 다 하여 봉제사(奉祭祀)와 재산관리(財産管 理)에 만전(萬全)을 기할 것을 다짐하였 다. 총회를 마치고 시내 평화동 청운한정 식당에서 오찬(午餐)을 들면서 문중의 번 영과 발전을 위하여 건배를 하면서 시종 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담을 나 누다가 해산하였다.

〈복야공파종회 총무부장 권오익〉

운암서원은 숙종34년 (서기 1708년) 해 공 권벽 (習齊公 權擘)의 다섯째 아들로

비운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의사의 여동생

부산 용호동 천주교 공원묘지에는 이주 특 별한 묘 하나가 있다.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인 안성너 여사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안 여 사의 친손자인 권혁우(71.대연5동 거주)씨가 동행했다.

도로에서 100여m 내려오자 오륙도를 내려 다보는 작고 초라항 봉분이 나왔다. 시멘트 로 만든 묘비에는 서툰 한글로 '안누시아성 여지묘'라고 적혀 있다. 무덤 바로 앞은 비탈 이 있어 절을 올릴 수도 없었다.

원래 안 여시는 6.25때 가족들과 함께 부산 으로 피란 와 1954년 영도구 신선동 자택에 서 시망했다. 당시 손자 권씨는 아버지와 함 께 손수레에 시멘트와 모래를 실어와 묘단과 비석을 만들고 글자를 직접 새겼다고 회고했 다. 안 여사는 오빠 안중근이 하얼빈 의거를 일으키고 이듬해 서거하자 연해주와 만주 등

지로 망명길에 올랐고 오랜 세월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학계는 물론이고 안중근에게 정근. 공근 두 남동생 외에 누이동생이 한 명 있었다는 정도만 알 러져 있을 뿐 안 여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 혀진 게 전무했다. 독립운동을 입증해 줄만 한 공식 문서가 없어 국가보훈처로부터 서훈 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해를 현충원으로 옮 기지 못하고 40년 넘게 천주교공동묘역 풀숲 에 방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독립유공자 서 훈 지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100년 전 오빠를 따라 목숨 내놓고 독립 운동하신 분입니다. 더욱이 여자의 몸인데 무슨 증거를 남길 수 있단 말입니까." 권씨 가 어의없다는 듯이 말했다. "독립유공자들 의 후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먹고 사는 게 빠듯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 기록의 중요성을



△안여사의 묘소와 손자 권혁우씨

인식하지 못했다"며 "얼마 안 되는 할머니의 흔적이라도 그때 남겨두고 보존했어야 했는 데 그러지 못해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 다"며 가슴을 쳤다.

민족영웅을 친오빠로 둔 안성너 여사의 삶 은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다. 1910년 오빠 안중근이 뤼순 감옥에서 숨을 거두자 이미 혼례를 치룬 안 여시는 남편, 친정 일가 등 과 함께 중국으로 급거 망명한다. 이후 안 의 사의 집안이 상해로 이주하고 안 여사의 가 족은 만주에 잔류하면서 두 집안은 흩어지게

된다. 1920년 독립운동을 하던 남편 권승복이 숨지면서 타국 생활은 더욱 힘겨워졌고 결국 만주를 떠나 해방을 맞기까지 외아들 권헌을 데리고 중국 전역을 유랑했다고 알려져 있

광복이 되면서 여사의 가족은 40여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긴다. 중국에서 태어난 장손 권혁우씨도 할머니 손을 잡고 처음 한국땅을 밟았다. 안 여시를 '누님'이라 불렀다는 이승 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의 도움으로 서울 쌍 림동에 거처를 마련하지만 얼마 안 돼 6.25가 터져 부산으로 내려 와 1954년 영도구에서 지 병과 노환으로 숨을 거두었다.

"너무 어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 지만 대쪽 같은 분이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생각난다. 생활이 궁핍해 할머니가 어린 저 를 데리고 부산시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 요. 비서진들은 할머니가 누군지 몰라 시장 님이 있는데도 없다고 둘러댔죠. 조금 있다 시장이 집무실에서 나오는 걸 보시더니 할 머니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시장의 머리를 내리치며 호통치던 모습이 또렷이 기억납니

일본의 재판기록이나 광복군 명단 등 문서 상에 여사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아 정부로부 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존재 자체가 베일에 가렸던 안 여사의 항 일 행적과 분묘의 존재가 세상에 전파된 데 는 안 여사의 며느리이자 혁우 씨의 어머니 인 오항선 여시를 통해서였다. 오 여사 역시 일제강점기 김좌진 장군 밑에서 독립운동 투 신한 이름 높은 애국지사다. 지난 2005년 국 제신문이 독립유공자들의 행적을 인터뷰하 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인 안 여사의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고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비로서 세간에 알려졌다.

오 여사는 독립군의 식사와 의복을 보급 하고 동료들과 함께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을 습격하기도 했다. 혁우씨는 "어머니(오항 선여사)는 1930년 북만주에서 김좌진 장군이 총격을 받고 쓰러질 때 함께 순국했다"고 말 했다. 여성으로 드물게 1990년 건국훈장 애국

장에 추서됐다.

안 여사의 외아들인 권헌 선생(오항선 여 사 남편) 역시 항일투쟁에 헌신한 독립투사 다. 권헌 선생은 평소 "대가를 바라고 독립운 동을 한 것이 아니니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선생 은 1980년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됐지만 혁우 씨는 유훈에 따라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신청 은 하지 않았다.

혁우씨는 할머니의 독립유공자 지정을 위 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는 규정집을 내보이며 '문서상의 물증'을 가 져올 것을 요구했다. 그나마 할머니를 증언 해 주던 모친이 작고하고 엎친데 덮친 격으 로 집안에 불이 나는 통에 그나마 갖고 있던 자료마저 모두 소실됐다. "안중근의 동생이 자 항일투사였던 할머니의 명예를 찾아드리 는 일이야 말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효도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부산 남구신문, 부산종친회〉